

# 롯데마트, 새벽배송 확대... 서울·경기남부·부산까지 OK!

경기 의왕·부산 오토프레시센터 '새벽배송' 위한 전용센터로 운영 내달 1일부터 '새벽에 ON' 확대 올 주문량 3배, 내년 4배 증가 기대



롯데마트물 새벽배송 전용 센터.



롯데마트, 새벽배송 확대 운영

/롯데쇼핑

롯데마트가 비대면 소비문화 추세에 따라 배송 서비스를 강화한다. 기존 주문 후 2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바로 배송', 매장 내에서 주문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매장 픽업', '냉장 상품 스마트 픽업',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 상품을 차에서 받는 '드라이브 스루' 외에 새벽 배송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롯데마트는 오는 12월 1일부터 경기 남부 및 서울과 부산 전 권역을 대상으로 새벽 배송 서비스인 '새벽에 ON'을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롯데마트의 기존 새벽 배송은 김포에 위치한 온라인 전용센터를 통해 경기 서부지역과 서울 일부 지역만 가능했으나, 롯데슈퍼가 운영하고 있던 의왕, 부

산의 오토 프레시 센터를 롯데마트가 운영하게 되면서 새벽배송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경기 의왕과 부산의 오토 프레시 센터는 일반 주간 배송이 아닌 오로지 '새벽 배송'을 위한 전용 센터로 운영한다.

최근 온라인 주문에서 신선 식품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51.7%까지 증가했고, 신선 구매 조건의 1순위가 품질인 만큼 품질 우수 전략의 대형마트로서 기회 요소로

판단해 새벽 배송의 확대에 나선 것이다.

롯데마트는 이번에 새벽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그로서리 전문몰의 강점을 살린 '3일돼지', '황금당도 과일' 등의 차별화된 신선 전문 상품과 새벽 배송 특화 카테고리인 간편 대용식, 음료 등의 상품을 강화한다. 새벽 배송은 아침 식사 및 간편식을 위한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밀키트, 간편식, Deli 상품군을 대폭 강화했다.

롯데마트는 이번 새벽 배송 서비스 확대로 주문량이 기존 보다 3배, 2021년에는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 전 권역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은 타 이커머스 업체와 차별화된 강점으로 부산 지역의 새벽 배송 서비스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롯데마트는 새벽 배송 외에도 온라인 주문 상품에 대해 물건을 받아 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바로 배송'은 '고객의 냉장고가 되어드립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온라인 주문 이후 픽킹, 팩킹까지 30분안에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최대 2시간 안에 주문 상품을 받아볼 수 있으며,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간편식, 반찬 등 그로서리 상품에 최적화된 혁신적인 배송 서비스다.

롯데마트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별도의 온라인 전용 센터의 건립이 아닌 기존 자산인 점포 중심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점포는 크게 '스마트스토어'와 '다크스토어'로 나뉘며, 중계, 광고처럼 매장 내에 피킹 스테이션과 컨베이어 벨트, 후방 자동화 패킹의 설비가 들어간 '스마트 스토어'는 연내 2개를 추가로 오픈, 21년에는 12개까지 수를 늘려운영할 계획이다.

'스마트 스토어' 개발과 동시에 후방의 자동화 패킹 설비를 설치하는 '다크 스토어' 형태는 연내 14개, 21년에는 29개까지 오픈할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환전대금 편의점서 24시간 수령하세요”

BGF리테일-유핀테크허브, 업무제휴 입국 외국인에 송금대금 지급 서비스



BGF리테일 송지택 혁신부부장(왼쪽)과 유핀테크허브 이재표 대표가 25일 편의점 핀테크 사업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BGF리테일

은행이 아닌 편의점에서 24시간 언제든지 환전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핀테크 전문기업 유핀테크허브와 온·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 핀테크, 테크핀 사업을 위한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외환거래 및 해외송금 서비스의 개발 및 시행, 제휴사업 신규 발굴 및 확대, 플랫폼 채널 제휴, 기술 협업 및 공동 특허 진행 등에 관한 금융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통해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외국인 관광객의 ATM을 통한 송금대금 수령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송금서비스 제공, 송금 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이용

등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이러한 흐름에 CU와 유핀테크허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완료하고 외화 환전 서비스 개발에 본격 돌입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가까운 편의점에서 24시간 언제든지

환전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CU는 내년 상반기 중 외화 환전 서비스의 도입을 목표로 이달부터 유핀테크허브와 시스템 개발 및 제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관련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공동 특허 출원까지 계획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 GS25 '카카오톡 주문하기' 배달 확대

5000여개 매장에서 본격 서비스 오전 11시~오후 11시, 1만원부터



직원이 GS25 매장에서 카카오톡 주문하기 그랜드오픈 기념 홍보물을 들고 있다. /GS리테일

편의점 GS25가 26일부터 '카카오톡 주문하기'를 통해 5000여개 매장에서 배달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GS25는 올해 5월에 편의점 업계 최초로 4500만 이용자를 보유한 모바일 플랫폼 카카오톡과 제휴를 시작하며 수도권 주요상권 내 20여개 점포에서 테스트 운영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매월 증가하는 배달서비스 매출 및 주문건수, 판매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의 근거리 소량배달에 대한 니즈를 확인해 이번 5000점 오픈을 추진하게 됐다.

카카오톡 주문하기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은 카카오톡 내의 해당 채널이나 '더보기' 탭에서 '주문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배달 가능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최소주문금액은 1만원, 기본 배송비는 3000원이다.

카카오톡 주문하기로 구매가능한 GS25 제품은 프레시푸드(Fresh Food), 즉석간편식, 음료, 유제품, 아이스크림, 스낵을 비롯해 일상용품, 위생용품 등 약 800여종에 달한다. 이 밖에도 카카오톡 주문하기 전용 프로모션과 수십

종류의 1+1 행사상품, 유튜브 레시피상품 등을 운영하며 고객들의 만족감을 높임으로써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톡 주문하기의 배달수행은 지역밀착형 친환경 건강배달 플랫폼으로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우리동네달리버리'와 배달대행업체 '부릉' 및 '바로고'가 맡는다. 일반인 도보 배달플랫폼 '우리동네달리버리'의 배달자 '우친(우리동네달리버리 친구)'은 올해 8월 19일 론칭 후 10월 말까지 약 4만명이 모집됐다. /신원선 기자

## 쿠팡, 직구·직수입 상품 최대 55% 할인

29일까지 '블랙프라이데이' 기획전



쿠팡이 29일까지 해외 직구 및 직수입 상품들을 최대 5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블랙프라이데이' 기획전을 연다. 쿠팡 로켓직구와 직수입 상품이 대상이며, 인기 건강식품은 물론 TV, 블루투스헤드폰, 인스탁스카메라 등 가전/디지털 상품까지 쿠팡이 엄선한 글로벌 셀렉션들로 준비됐다.

로켓직구 상품은 건강식품, 뷰티, 홈인테리어, 가전/디지털 등 총 9개 카테고리에 걸쳐 600만여개를 선보인다. 삼성TV, 다이슨, 나우푸드 등 유명 브랜드의 인기 상품이 있으며, 최대 55%의 할인 혜택과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할인 쿠폰 할인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1시 타임 할인과 매일 새로운 추가 할인 찬스도 제공한다. 특히 매일 오전 11시 타임 행사에서 삼성전자 스마트TV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빠른 배송 또한 장점이다. 로켓와우 회원이면 단 한 개의 상품도 무료배송이며, 평균 3~4일, 도서산간지역의 경우도 7~10일 이내에 상품을 받아 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 오리온, 크리스마스 한정판 '디저트 초코파이' 출시

오리온은 프리미엄 냉장디저트 '디저트 초코파이'의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판 '크리스마스 디저트 초코파이'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맞아 가족 중심의 '휴파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착안, 커피나 음료와 함께 간단히 즐길 수 있으면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디저트를 선보인 것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 갤러리아백, 포레르빠쥬 '어반나이트' 공개

국내독점 프랑스 명품 신규컬렉션



갤러리아백화점이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전개하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포레르빠쥬가 카무플라주 패턴을 활용한 신규 컬렉션 '어반나이트'를 선보인다.

신규 컬렉션의 특징은 포레르빠쥬 무기제조 헤리티지와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여전사와 워리어들의 유니폼, 그리고 파리 루브르 석화장식에서 영감을

얻어 카무플라주 패턴을 포레르빠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